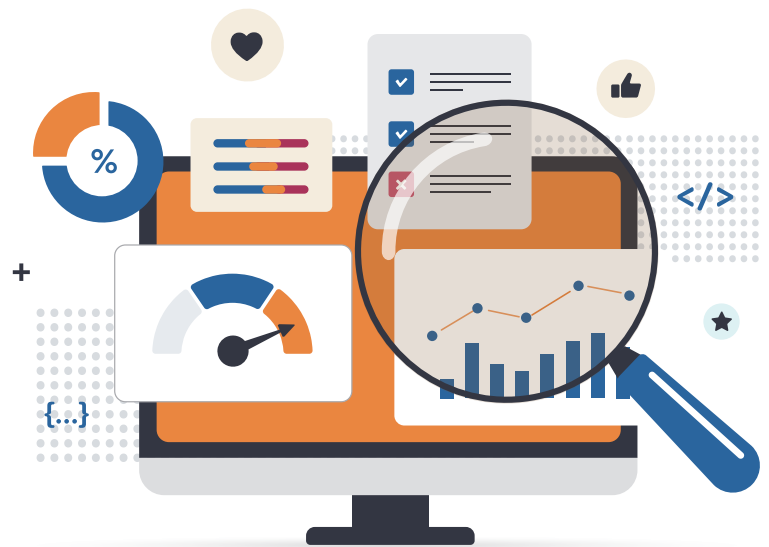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10. 5.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15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보는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변화

양태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장, 설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통계팀 연구원

- ⦿ 초·중·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규모가 축소되고, 대규모 학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소규모 학급은 증가하면서 학급 규모의 소규모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 전문대학은 학교 수, 재적학생 수가 큰 폭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주도의 감소와 규모별 양극화가 나타난 반면, 대학은 학교 수, 재적학생 수, 교원 수가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중심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 지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함께 학교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 간 통·폐합 역시 국가 차원에서 추진·장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00년과 2026년 교육통계 비교를 통해 지난 26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변화와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기본통계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육기본통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교육기본통계는 1963년 교육 분야 최초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매년 작성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교육기본통계는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등 교육 전반의 현황을 조사하여 양질의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관련 기초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통계는 196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는 조사 대상에 따라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로 구분된다. 두 조사 모두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며(일부 항목 기준일 상이),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는 2014년부터, 고등교육통계조사는 2015년부터 매년 10월 1일 기준의 조사가 추가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학교, 학급 및 학과, 학생, 교직원, 시설 등이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에서 자료를 조사·입력하며, 고등교육통계조사는 별도의 조사 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에서 자료를 조사한다. 수집된 자료는 단계별 검증 과정을 거쳐 매년 8월 말 공표되며, 이후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기관, 국가데이터처, 연구자, 연구기관 등에 제공되어 다양한 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유·초·중등학교 변화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가 200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규모가 축소되고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학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소규모 학급은 증가하면서 학급 규모의 소규모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 축소와 함께 교원 구성과 학급 운영 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지역별(수도권¹⁾/비수도권) 학교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학교 수 증가 폭이 약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 지역

45~49%로 큰 반면, 비수도권은 약 6~11% 증가에 그쳤다. 반대로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비수도권 초등학교(-48.0%)와 고등학교(-44.4%)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가. 초등학교 변화(2000년 vs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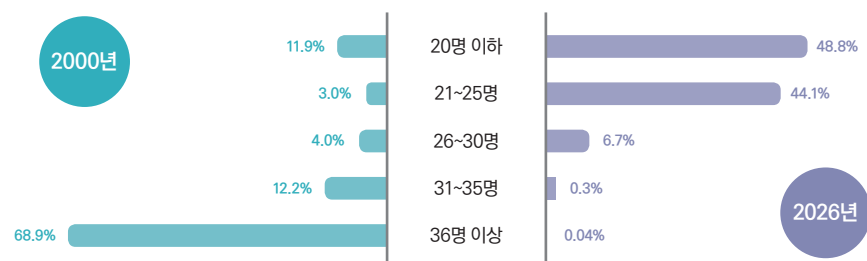
2000년과 비교해 2026년 평균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도 35.8명에서 18.6명으로 17.2명(48.0%) 감소하였다. 반면 교원 수는 증가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7명에서 11.6명으로 17.1명(59.6%)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당 교원 수는 26.6명에서 30.9명으로 4.3명(16.2%) 증가하였다. 교원 평균 연령은 38.9세에서 42.3세로 3.4세 증가하였다.

그림1 2000년 대비 2026년 평균 초등학교 변화

	학교당 학급수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교원 평균연령(세)
2000년	21.3	763.2	35.8	28.7	26.6	38.9
2026년	19.3	358.5	18.6	11.6	30.9	42.3
증감 (2000년 대비)	↓ -2.0 (-9.4%)	↓ -404.7 (-53.0%)	↓ -17.2 (-48.0%)	↓ -17.1 (-59.6%)	↑ +4.3 (16.2%)	↑ +3.4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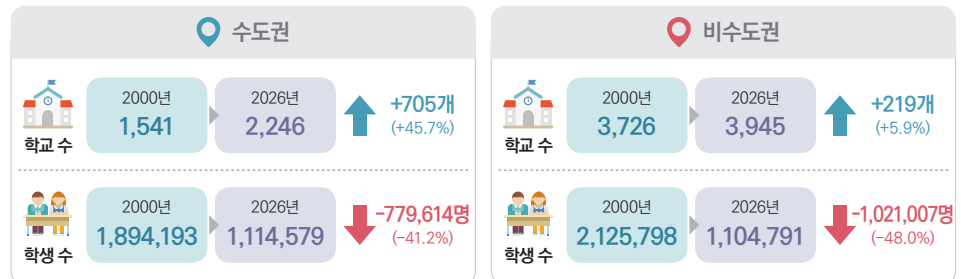
학급 규모에서도 대규모 학급이 감소하고 소규모 학급이 증가하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 비율은 11.9%에서 48.8%로 36.9%p 증가한 반면, 36명 이상인 학급 비율은 68.9%에서 0.04%(46개)로 68.86%p 감소하였다.

그림2 2000년 대비 2026년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변화



지역별 학교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학교 수는 증가한 반면, 학생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학생 수 감소 폭은 비수도권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 2000년 대비 2026년 초등학교 지역별 학교수·학생수 변화



나. 중학교 변화(2000년 vs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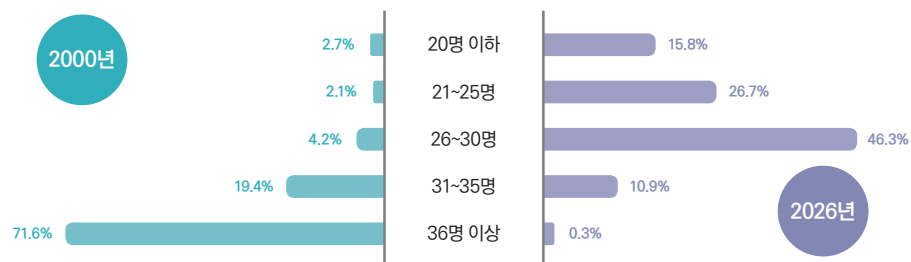
2000년과 비교해 2026년 평균 중학교는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38.0명에서 24.5명으로 13.5명(35.5%) 감소하였다. 반면 교원 수는 증가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에서 11.5명으로 8.6명(42.8%)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당 교원 수는 33.9명에서 35.2명으로 1.3명(3.8%) 증가하였다. 교원 평균 연령은 38.5세에서 42.3세로 3.8세 증가하였다.

그림 4 2000년 대비 2026년 평균 중학교 변화

	학교당 학급수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교원 평균연령(세)
2000년	17.9	681.3	38.0	20.1	33.9	38.5
2026년	16.6	405.6	24.5	11.5	35.2	42.3
증감 (2000년 대비)	↓ -1.3 (-7.3%)	↓ -275.7 (-40.5%)	↓ -13.5 (-35.5%)	↓ -8.6 (-42.8%)	↑ +1.3 (3.8%)	↑ +3.8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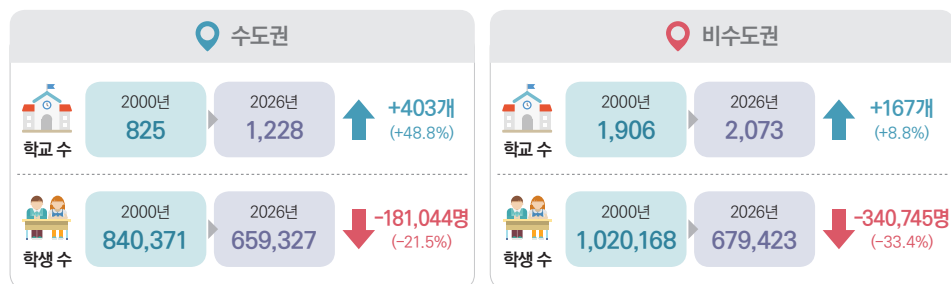
학급 규모에서도 대규모 학급은 감소하고 소규모 학급은 증가하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 비율은 2.7%에서 15.8%로 13.1%p 증가한 반면, 36명 이상인 학급 비율은 71.6%에서 0.3%로 71.3%p 감소하였다.

그림 5 2000년 대비 2026년 중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변화



지역별 학교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학교 수는 증가한 반면, 학생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학생 수 감소 폭은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6 2000년 대비 2026년 중학교 지역별 학교수·학생수 변화



다. 고등학교 변화(2000년 vs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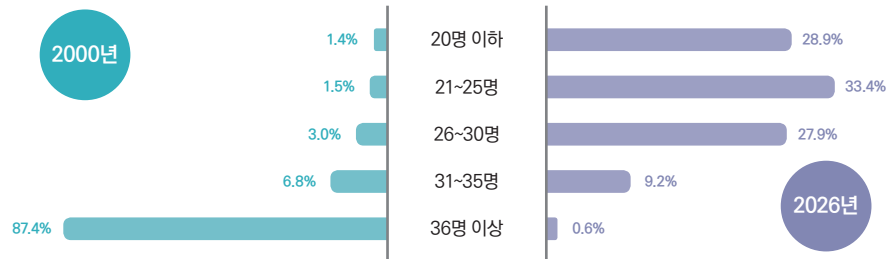
2000년과 비교해 2026년 평균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42.7명에서 23.1명으로 19.6명(45.9%) 감소하였다. 반면 교원 수는 증가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9.9명에서 10.0명으로 9.9명(-49.7%)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당 교원 수는 53.3명에서 53.6명으로 0.3명(0.6%) 증가하였다. 교원 평균 연령은 40.0세에서 42.5세로 2.5세 증가하였다.

그림 7 2000년 대비 2026년 평균 고등학교 변화

	학교당 학급수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교원 평균연령(세)
2000년	24.8	1,058.5	42.7	19.9	53.3	40.0
2026년	23.1	533.5	23.1	10.0	53.6	42.5
증감 (2000년 대비)	↓ -1.7 (-6.9%)	↓ -525.0 (-49.6%)	↓ -19.6 (-45.9%)	↓ -9.9 (-49.7%)	↑ +0.3 (0.6%)	↑ +2.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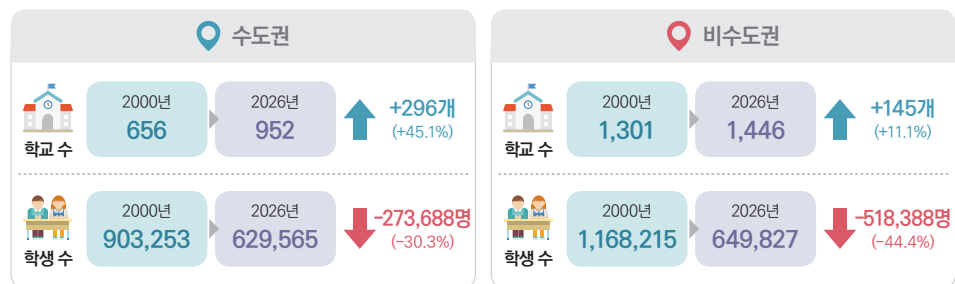
학급 규모에서도 대규모 학급은 감소하고 소규모 학급은 증가하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 비율은 1.4%에서 28.9%로 27.5%p 증가한 반면, 36명 이상인 학급 비율은 87.4%에서 0.6%로 86.8%p 감소하였다.

그림 8 2000년 대비 2026년 고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변화



지역별 학교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학교 수는 증가한 반면, 학생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학생 수 감소 폭은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림 9 2000년 대비 2026년 고등학교 지역별 학교수·학생수 변화



고등교육기관 변화

2026년 우리나라 전문대학과 대학은 2000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을까? 전문대학은 학교 수, 재적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는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은 학교 수, 재적학생 수, 교원 수가 증가하며 전문대학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수도권 중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 전문대학²⁾ 변화(2000년 vs 2026년)

우리나라 전문대학 수는 2000년 158개교에서 2026년 126개교로 32개교(-20.3%) 감소하였다. 2000년 대비 2026년 수도권에서 7개교(-14.3%), 비수도권에서 25개교(-

2) 전문대학 과정에는 다양한 학교 유형이 존재하지만, 시점 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본고에서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만 포함함. 각종대학, 기능대학(2011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기술대학,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전공대학(2011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은 제도적 성격과 운영 방식의 차이, 조사대상 편제의 불연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22.9%)가 감소하여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감소폭이 더 컸다. 규모별³⁾ 학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전문대학에서 A그룹(16.5% → 12.7%)과 B그룹(30.4% → 15.9%)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C그룹(28.5% → 38.1%)과 D그룹(24.7% → 33.3%)은 증가하였다. 이는 전문대학의 학교 수 감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학교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10 2000년 대비 2026년 전문대학 학교 수 변화



주: 규모는 2000년 및 2026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재적학생 수는 2000년 913,273명에서 2026년 504,897명으로 408,376명(-44.7%) 줄어들었다. 2000년과 비교하여 2026년 수도권 전문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317,091명에서 77,601명(-24.5%) 감소한 239,490명이었고, 비수도권은 596,182명에서 330,775명(-55.5%) 감소하여 절반 수준인 265,407명이었다. 지역과 무관하게 재적학생 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컸고, 전체 재적학생 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35:65에서 47:53으로 변화하였다. 규모별로는 A~D그룹 모두 감소하였고, 규모가 작을수록 2000년 대비 2026년 감소폭은 더 커졌다(A그룹: -86,320명, -35.7% → B그룹: -98,422명, -36.1% → C그룹: -151,324명, -53.5%, D그룹: -72,310명, -62.5%). 그 결과 규모별 재적학생 수 비중도 A그룹(26.5% → 30.9%)과 B그룹(29.8% → 34.4%)은 상승한 반면, C그룹(31.0% → 26.1%)과 D그룹(12.7% → 8.6%)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재적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 규모별 양극화 흐름도 함께 나타났다.

3) 학교 수는 규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2000년과 2026년 학교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A그룹(6,000명 이상), B그룹(4,000명 이상~6,000명 미만), C그룹(2,000명 이상~4,000명 미만), D그룹(2,000명 미만)으로 구분함. 규모 구분의 기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의 분류를 참고한 것이나, 동 시스템이 대규모(재학생 수 4,000명 이상)로 분류하는 구간은 대규모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 A그룹과 B그룹으로 세분함. 재적학생 수와 교원 수는 시점에 따른 학교그룹(A, B, C, D) 변경이 없도록 2000년과 2026년의 중간 시점인 2013년 학교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고정된 규모 구분을 적용함.

그림 11 2000년 대비 2026년 전문대학 재적학생 수 변화



주: 규모는 2013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전문대학 교원 수는 2000년 38,942명에서 2026년 37,065명으로 1,877명(-4.8%)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3,430명(-14.4%) 감소한 것과 달리 수도권 전문대학은 오히려 1,553명(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수의 감소는 전부 비수도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원 확보에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규모별 교원 수 증감을 살펴보면, B그룹(1,156명, 10.2%)은 증가한 반면 A그룹(-309명, -3.0%), C그룹(-976명, -8.2%), D그룹(-1,748명, -33.4%)은 모두 감소하여 중·소규모(C·D그룹)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수에서 A그룹(26.8% → 27.3%)과 B그룹(29.3% → 33.9%)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C그룹(30.5% → 29.4%)과 D그룹(13.5% → 9.4%)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이는 누적된 학생 수 감소가 교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그림 12 2000년 대비 2026년 전문대학 교원 수 변화



주: 규모는 2013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나. 대학⁴⁾ 변화(2000년 vs 2026년)

우리나라 대학 수는 2000년 191개교에서 2026년 195개교로 4개교(2.1%) 증가하였다⁵⁾. 대학 신설 외에도 일부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학제 전환이 학교 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기준 대학 수는 수도권 72개교, 비수도권 123개교로 각각 1개교(1.4%), 3개교(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26년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한 비중은 37:63으로 동일하였다. 규모별⁶⁾ 학교 수를 보면, A그룹에서 5개교(22.7%), B그룹에서 3개교(14.3%) 증가한 반면, D그룹에서는 4개교(-4.4%) 감소하였다. 그룹별 학교 수 비중은 A그룹(11.5% → 13.9%)과 B그룹(11.0% → 12.3%)이 다소 증가하고 C그룹(29.3% → 28.7%)과 D그룹(48.2% → 45.1%)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00년 이래 추이를 보면, 대학 수는 2011년 202개교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통·폐합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3 2000년 대비 2026년 대학 학교 수 변화



주: 교육대학·산업대학·일반대학 포함, 규모는 2000년 및 2026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4) 대학 과정에는 다양한 학교 유형이 존재하지만, 시점 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본고에서 '대학'은 '교육대학·일반대학·산업대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각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은 제도적 성격과 운영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5) 2018년부터 분교(5개교)가 학교 수로 별도 집계되었으나, 시점 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캠퍼스와 분교를 본교에 포함하여 1개교로 처리함.

6) 학교 수는 규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2000년과 2026년 학교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A그룹(15,000명 이상), B그룹(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C그룹(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D그룹(5,000명 미만)으로 구분함. 규모 구분의 기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의 분류를 참고한 것이나, 동 시스템이 대규모(재학생 수 10,000명 이상)로 분류하는 구간은 대규모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 A그룹과 B그룹으로 세분함. 재적학생 수와 교원 수는 시점에 따른 학교그룹(A, B, C, D) 변경이 없도록 2000년과 2026년의 중간 시점인 2013년 학교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고정된 규모 구분을 적용함.

재적학생 수는 2000년 1,856,927명에서 2026년 1,894,516명으로 37,589명(2.0%)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수도권 대학의 재적학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수도권 대학은 684,875명에서 813,234명으로 128,359명(18.7%)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172,052명에서 1,081,282명으로 90,770명(-7.7%) 감소하였다. 그 결과 전체 재적학생 수에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3에서 43:57로 변화하였다. 규모별로는 A그룹(43,853명, 6.3%)과 D그룹(11,150명, 6.8%)에서 유사한 증가폭을 보였고, B그룹(1,808명, 0.4%)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C그룹만 19,222명(-3.5%) 감소하였다. 2000년 대비 2026년 규모별 재적학생 수 비중은 A그룹과 D그룹이 소폭 상승하고, C그룹은 소폭 하락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A그룹: 37.5% → 39.0%, B그룹: 24.6% → 24.2%, C그룹: 29.2% → 27.6%, D그룹: 8.8% →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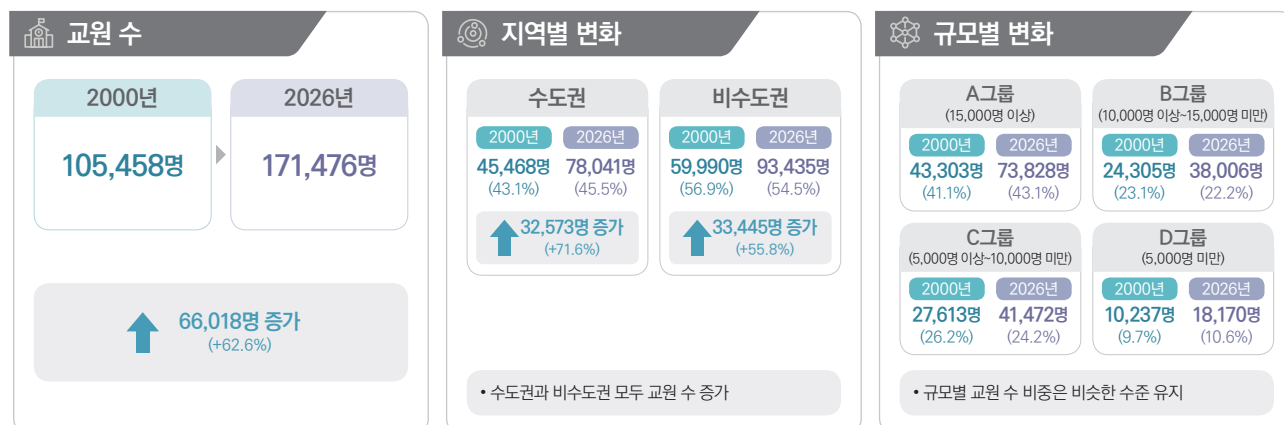
그림 14 2000년 대비 2026년 대학 재적학생 수 변화



주: 교육대학·산업대학·일반대학 포함, 규모는 2013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교원 수는 2000년 105,458명에서 2026년 171,476명으로 66,018명(62.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교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은 32,573명(71.6%), 비수도권은 33,445명(55.8%) 증가하여 수도권 대학의 증가폭이 더 컸다. 규모별로도 모든 그룹에서 교원 수가 증가하였고, 규모별 교원 수 비중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A그룹: 41.1% → 43.1%, B그룹: 23.1% → 22.2%, C그룹: 26.2% → 24.2%, D그룹: 9.7% → 10.6%).

그림 15 2000년대 대비 2026년 대학 교원 수 변화



주: 교육대학·산업대학·일반대학 포함, 규모는 2013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교육기본통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본 고에 수록된 통계 외에도 더욱 다양한 교육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간행물과 주요 시계열 통계를 비롯한 방대한 데이터는 물론 학교별 상세 데이터셋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교육기본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통계자료 조회·제공 요청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https://kess.kedi.re.kr)에서 할 수 있다.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